

1.말씀요약

베드로의 부인 기사는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의미인데 사실 베드로 개인적으로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어쩌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기록이 아닐까 싶습니다. 베드로가 순교한 후 사복음서가 쓰여졌기 때문에 베드로의 개인적 부끄러움은 차치하고서라도 교회 최고 지도자의 민낯이 과연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부인은 언약성취요, 초대교회 순교의 발판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겹세마네 동산 기도에 집중했다면 부인하지 않았을거라는 인본주의적, 비언약적 해석을 조심해야 합니다. 목자가 죽고 양들이 흩어지는 것은 언약의 성취입니다(속13:7).** 인간의 언약함과 하나님의 언약은 톱니바퀴가 맞물려 있듯이 돌아갑니다. 이를 부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불신앙입니다. 베드로의 배신은 언약성취요, 이 언약성취를 경험했던 베드로는 기꺼이 순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베드로의 배신을 비난하거나 욕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배신자의 대열에 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배신자라는 비난을 듣게 된 이유는 스승 예수의 근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멀찍이(58절) 서서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게 예수님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위대함이고, 모든 신자들 안에 있는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 자리에 없었다면 **'너도 예수 도당이지?, 너도 예수를 따르던 자 아니냐?'** 라는 말을 들을 필요도, **'나는 모른다! 맹세코 아니다!'**라는 배신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배신자라는 비난을 받습니다. 배신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배신입니다. 죄 안에, 세상 안에 있으면 배신이 아니라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교회는 배신자들의 모임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예수님 말씀 생각나서 읊니다. 오늘도 우리는 신자된 삶에 실패하고 그 부족함에 한숨을 쉽니다. 절망과 낙심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불평하는 배신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은혜의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할지언정 멀찍이라도 있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래야 예수님 눈이라도 마주치기 때문입니다(눅22:61-2).** 늘 이 모양으로 신앙생활해도 예수님 주위에 있으면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 보시는 그 눈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 사랑의 눈빛 때문에 신자들은 변화되고 회개되어 주를 위해 생명을 드리게 됩니다. 믿음은 생각보다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위대한 영웅들의 무용담들은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 언약성취의 일부입니다.** 오히려 인간 믿음의 현실은 배신, 불신, 불평, 낙심, 넘어짐, 등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신자들의 딜레마는 이것입니다. '내 믿음은 늘 왜 이 모양일까?'

그러나 그 모양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귀한 겁니다. 가룟유다처럼 죽는 것은 쉽습니다. **그 모양이어도 끝까지 구역구역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이 위대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도 위대한 성경의 영웅들과 같이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넘어지고 실패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전히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십니다. 예수님 부인한 것 때문에 눈물 흘릴 수 있다면 언젠가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2.적용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경험이 있으면 함께 나눠 봅시다.

혹시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이 무덤덤해지고 있지 않나요? 실패와 불신앙 때문에 여전히 통곡하고 있나요?

3.함께 기도해요

사랑하는 예수님, 늘 이 모양이지만 저를 지금까지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해도, 넘어져도, 실패해도 늘 예수님 곁에 멀찍이라도 있게 해주세요. 언젠가 예수님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게 해주세요.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김성수 사 박재운 곡

사랑합니 다 나의예수 님 사랑합니 다 아주많이
 - 요 - 사랑합니 다 나의예수 님 사랑합니
 다 그것뿐예 요 사 랑 한 다 아 들 아
 내 딸 아
 내 가 너 를 잘 아 노 라 - 사 랑 한 다 아 들
 내 딸
 아 네 게 축 복 더 하 노 라 -

Copyright (C) 1995 김성수, 박재운. Adm. By KCMCA.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Words & Music by Stephen Hah

십자가 그사 랑 멀리떠- 나 서
 지나간 일들 을 기억하지 않 고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 혜
 이전에 행한 모 든일 생각지않 으 리
 돌같은 내마 음 어무만- 지 사
 사막에 강물 과 길을내시 는 주
 다시일 으켜 세 우신 주 를 사랑합니 다
 내안에 새일 행 하실 주 만 바라보리 라
 주 나를보호 하 시고 날 - 불 드시
 주 너를보호 하 시고 널 - 불 드시
 리 - 나는 보 - 배 롭 고 존 귀 한
 리 - 너는 보 - 배 롭 고 존 귀 한
 주님의자 녀 라 주 - 의자녀라